

부실기업 신속 ·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브리핑문

2026.2.12.(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합동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입니다.

그 일환으로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효율화하였습니다.
그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으며,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 [시총] ('25) 40억원 → ('26) 150억원 → ('27) 200억원 → ('28) 300억원
[매출] ('25) 30억원 → ('27) 50억원 → ('28) 75억원 → ('29) 100억원

‘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3년 8건, ‘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부실기업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총은 8.6배로 크게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 자진상폐, 이전상장 수치는 제외

** 같은기간 코스피는 시총은 6.7배, 지수는 3.8배로 상승 (지수 상승폭 ↑)

정부는 부실 상장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①집중관리기간 운영, ②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③절차 효율화 세 가지 측면의
개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기업이 연명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신뢰를 저해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바
이를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27.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 집중관리단은 기존 상폐심사 3개팀에 금주(2.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신속히 인력 보강

집중관리기간에는 단장이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합니다.

아울러 '26년 거래소 경영평가시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 (예) 코스닥 사업평가 점수 100점 중 최소 20점 반영(현재는 0점)

** '26년부터 코스닥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별도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되므로
(‘25.12월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발표) 시너지 효과 예상

둘째,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입니다.

①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7년 1월 200억원, '28년 1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향조정 계획을

‘26.7월 200억원, ‘27.1월 300억원으로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26.1월	‘26.7월	‘27.1월	‘28.1월
현행	40 → 150억원	-	150 → 200억원	200 → 300억원
조기화	-	150 → 200억원	200 → 300억원	-



아울러, 일시적 주가떨우기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30일 연속 시총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45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②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합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총 등의 특성이 있는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美 나스닥도 1달러 미만인, 이른바 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합니다.

또한,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율합니다.

* (예)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폐요건 회피를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

세부적용 기준은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30일 연속 하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간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됩니다.

③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적용되나,
반기 기준을 추가합니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추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④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합니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4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기준 조기화	['26.7월] 150 → 200억원 ['27.1월] 200 → 300억원	['26.7월] 200 → 300억원 ['27.1월] 300 → 500억원
동전주 요건 신설	신설	좌동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좌동
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	누적벌점 15점 → 10점, 중대·고의 위반 추가	좌동

셋째,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를 보다 효율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심사의 장기화로 인한
적시퇴출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작년,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합니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처분 소송시 거래소가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건 증가시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5년('21~'25년) 상폐 가처분 소송 85건 중 2건만 인용

** 평균 결정 소요기간: ('22년) 103일 → ('23년) 189일 → ('24년) 202일

현 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하여
한국거래소가 단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향후 기업의 액면병합, 주가 개선노력 등에 따라 수치는 가변적

형식적 요건 (심사없이 요건해당시 상폐, A)	
기존 예상 건수	20개 내외
시총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30여개
동전주 요건 추가	+18 ~ 135개사
소계	68 ~ 185개사
실질심사 요건 (심사를 거쳐 상폐, B)	
기존 예상 건수	30개 내외
자본잠식 요건 강화	+2개사
공시위반 요건 강화	+3개사
소계	35개사
합계 (A+B)	
	100 ~ 220여개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오늘부터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4월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 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작년 말 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맞춤형 심사 대상인 혁신기술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하고,
좋은 기업들은 상장하고 싶은
매력적인 거래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